

특별강연(2):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조 동 일**

1. 서두의 소개

이 글은 2003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 고르키세계문학연구소(Институт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 А. М. Горького РАН, Gorky Institute of World Literature)에서 강연한 원고이다. 발의자인 작가 고르키의 이름을 앞에다 내놓고 1932에 창설한 그 기관은 소비에트과학아카데미에 소속되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3백 명쯤 된다고 알고 있는 많은 연구원이 세계문학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대단위 연구소이다. 이 정도의 문학연구소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더 없다.

고르키세계문학연구소에서 30년 정도 작업한 결과로 내놓은 『세계문학사』(*История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87-)는 다룬 내용이 가장 넓고 충실한 세계문학사이다. 나는 『세계문학사의 허실』(1996)에서 세계 각국에서 나온 세계문학사 가운데 이 책을 특히 중요시해 최대의 분량으로 자세하게 고찰했다. 강연을 하기 전에 소장실에 들리니, 내가 자기네 세계문학사에 대해 본격적인 서평을 최초로 길게 한 것을 알고 있어 감사한다고 했다.

* 한국문학회 편집위원회 주: 이 발제문은 개별 연구논문이 아니라 2017년 6월 17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개최한 <한국문학회 창립4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특별 기조강연 원고임을 밝혀 둡니다.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그 쪽 청중을 깨우쳐주고 싶은 내용으로 이 원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써 가지고 갔다. 세계문학사에 수록된 한국문학에 대한 서술을 바로잡고, 세계문학사 이해의 관점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길게 말할 겨를이 없으므로 특히 긴요한 말만 번역하기 쉽게 간추렸다. 러시아어 번역본이 배부되고, 러시아어 통역이 내 말을 한 단락씩 따라 옮겼다. 통역을 통해 발표를 하니 진행이 더디고, 전달을 확인하기 어려워 갑갑했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국내의 청중을 상대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 소원인데 기회를 얻기 못했다. 원고를 썬허들 수 없어 『조동일 평론선집』(2015)에 수록해 세상에 내놓았으나,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읽는지 알지 못해 또한 갑갑하다. 한국문학회에서 고대해 마지않던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어 감사한다.

2. 세계문학사 이해의 의의

세계문학사는 인류가 하나임을 입증하는 의의를 가진다. 세계문학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세계 도처의 문학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세계문학사를 실제로 쓰는 작업을 유럽에서 한 세기 반도 더 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온 것은 평가할 일이다. 그 결과 이루어진 수많은 저술은 근대학문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른 문명권에서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례를 뒤따르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세계문학사는 유럽 밖의 많은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해온 제국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가 자료가 부족하고 사실 인식이 미흡한 데 있지 않다. 유럽문명권이 우월하다고 강변하려는 의도에서 유럽문명권중심주의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기네 문학이 가장 우월하다고 강대국끼리 다투는 장소로 세계문학사를 이용해왔다. 그런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전 6권으로 내놓은 『문학의 일반적 역사』(*Histoire générale des littératures, Paris: 1961*)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내놓은 세계문학사는 모두 유럽문학이 세계문학이라고 하고 다른 여러 곳의 문학은 무시했다. 독일에서 『문예학의 새로운 핸드북』(*Neues Handbuch der Literaturwissenschaft, Wiesbaden: 1978-1984*)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든 세계문학사는 25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아시아문학을 뒷부분에 첨부했을 따름이다. 그런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러시아의 『세계문학사』(*История Всем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Москва: 1987-*)는 처음 계획한 10권 가운데 8권까지 나오고 중단되어 안타깝다.

3. 한국문학사에서 세계문학사로

문학사에 관한 나의 작업은 『한국문학통사』 전5권(제1판 1982-1988, 제4판 2005)에서 시작되었다. 그 책에서 한국문학사를 통괄해서 서술한 다음 관심을 동아시아문학으로 확대해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1993)을 출간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세계문학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계문학사의 허실』(1996)에서 위에서 든 셋을 포함한 8개 언어 38종의 세계문학사를 모두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지금까지의 세계문학사 서술에서 제외되거나 폄하되어온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곳의 문학을 충분히 포괄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 문학사 이해의 기본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는 더욱 중요한 과업을 힘써 수행하겠다고 했다.

『카타르시스·라사(rasa)·신명풀이』(1997)에서, 고대 그리스연극, 중세 인도연극,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한국연극의 원리를 비교해 고찰하면서 세계연극사의 전개를 새롭게 이해하는 작업을 했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1997)에서, 오늘날까지 구전되면서 시대에 따른 변천을 겪어온 구비서사시가 문학의 의의를 재평가하고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다시 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으로 이루어진 『중세문학의 재인식』(1999) 삼부작에서,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관계를 중심에다 둔 중세문학의 기본구조가 여러 문명권에서 서로 같다는 사실을 밝혔다. 『철학과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2000)에서, 철학과 문학이 시대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진 과정을 세계 전체의 범위에서 고찰하고, 그 둘이 가장 멀어지게 한 근대의 잘못을 시정하자고 했다.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2001) 전 3권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문학사회학을 이룩하는 작업을 소설을 예증으로 삼아 다각도로 전개하고, 유럽에서 생긴 문학의 위기를 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극복하는 양상과 방향을 논했다. 마지막 순서로 『세계문학사의 전개』(2002)를 써서, 원시문학, 고대문학, 중세문학,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 근대문학이 여러 문명권, 많은 민족의 문학에서 함께 전개된 양상을 두루 고찰했다.

이들 저서에서 세계문학사에 관해 탐구하면서 한국문학사를 되돌아보았다. 한국문학사가 세계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재검토했다. 그래서 얻은 결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셋 들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에는 구비서사시가 많이 있으며, 구비서사시가 시대에 따라 변천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아이누, 중국 雲南(Yunnan) 지방 여러 민족, 중앙아시아 터키계 여러 민족과 함께 서사시의 세계사를 재인

식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면서, 그 서두와 결말을 잘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원서사시를 전승하고 있는 점이 아이누의 경우와 상통한다. 구비서사시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으로 재창작한 성과를 특히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2) 한국은 중국·월남·일본과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을 이루면서, 월남과 함께 그 중간부에 자리 잡고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을 둘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밀접하게 연관 지었다. 중심부는 공동문어문학을, 주변부는 민족어문학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중간부에서는 그 둘이 대등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 다른 문명권에서도 일제히 확인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산스크리트문명권의 타밀, 아랍어문명권의 페르시아, 라틴어문명권의 프랑스나 독일이 그 점에서 한국과 비교될 수 있다.

(3) 한국은 식민지 통치하에서 근대문학을 이룩하고 민족해방의 의지를 고취하는 과업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민족과 함께 수행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특히 혹독해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내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향거의 문학을 이룩했다. 유럽 근대문학의 영향을 직접 받아들이지 못해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앞 시대까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발전시켜 민족어문학을 널리 모범이 되게 확립했다. 오늘날 겪고 있는 정치적인 분단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 그 때문이다.

4. 구비서사시의 변천 과정 비교

문학은 구비문학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그 경과를 살피는 것이 문학사 이해의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구비문학의 자료가 어디든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족은 구비문학만 간직하고 있지만, 기록문학이 발달하고 근대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구비문

학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한국은 그 두 가지 특성을 함께 지녔으면서도 구비문학의 유산을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다. 원시시대의 구비문학에서 오늘날의 기록문학까지 세계문학사가 전개된 과정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최상의 증거를 한국에서 제시한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마을신의 유래를 풀어 밝히는 노래를 들어보자. 바람의 신이 못난 본부인은 버리고 아름다운 첩과 함께 제주도에 이르러 한라산에 올라가서 새 삶을 시작해 사냥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장면을 서술했다.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사냥꾼이 반갑게 여겨 절을 하자, 자기를 받들어 모시라고 했다. 사냥의 신이 스스로 사냥을 해서 모범을 보이고 사냥감이 번성하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내력을 그렇게 풀이했다. 이것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원시 수렵민의 신앙서사시이다. 세계문학사가 시작되는 모습을 한국에서 볼 수 있게 한다.

제주도의 다른 몇 곳에서 마을신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 다음 시기에 이루어진 고대의 영웅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부모가 모두 땅에서 솟아나서, 어머니가 무쇠철갑에 실려 왔다고 했다. 그 둘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산 뒤에, 아버지가 농우를 잡아먹어 부모가 별거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해 철갑에 넣어 멀리 떠내려 보냈다. 아들은 먼 나라에 표착해 그 나라 부마가 되고 난리를 평정해 큰 공을 세웠다. 머리 둘·셋·넷 달린 도적을 죽였다고도 한다. 군사를 이끌고 귀국하자 아버지는 도망쳤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차지해 제주도 전역을 다스렸다. 이런 내용을 갖춘 탐라국 건국서사시가 오늘날까지 구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길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세계 도처에 있었고, 지금은 그 일부가 문헌 기록에 전하기나 한 영웅서사시의 실제 모습이다.

또 하나의 구비서사시인 판소리는 서사무가를 전승하는 무녀 남편들이 독자적인 흥행을 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냈다. 그 시기는 18세기 무렵이고 장소는 전라도이다. 판소리 광대는 고수를 따로 두어 반주를 맡기

고, 최대의 기량을 가다듬어 인기 있는 공연을 하면서 음악에서나 문학에서나 다양한 자료를 풍부하게 끌어들이 다층적인 창조물이게 했다. 판소리는 하층민의 범위를 넘어서서 널리 환영받고 크게 평가되었으며, 독서물로 정착되고 유통되어 판소리계소설을 이루었다.

판소리의 사설은 다면적인 구조와 의미를 지녔다. 노래 부분인 창과 해설 부분인 아니리가 서로 다른 수작을 하고, 유식한 문어체와 상스러운 구어체를 함께 사용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느 작품에서든지 중세적인 윤리관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뒤집어놓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을 전개했다.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달라, 오늘날의 연구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논쟁이 계속된다.

<춘향가>는 기생의 딸 춘향이 사또의 아들 이도령 때문에 겪는 사랑과 이별을 문제 삼았다. 이도령을 받아들일 때에는 처지에 합당하게 행동하던 춘향이 이도령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뒤에 후임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수난을 당했다. 그것은 열녀다운 행실인가 아니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인가 두고두고 시비하게 한다. 작품을 해석하고 개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쪽을 나무라게 한다. 그런 다면성 덕분에 소설본 『춘향전』이나 그 뒤 여러 형태의 개작본까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린다.

5.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관계 비교

중국에서 한문을 받아들여 한국은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일원이 되었다. 한문을 받아들인 시기는 기원 전후라고 할 수 있으나, 한문학 작품은 5세기 이후의 것이 남아 있다. 한문을 공동문어로 사용하고 유교와 불교에서 보편적인 이념을 얻어 한국이 중세화한 것은 역사 발전의 당연한 과정이다. 한문문명은 산스크리트문명·아랍어문명·라틴어문명과

추구하는 이상이나 내부적인 구조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 세계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구실을 했다.

중국·한국·일본은 한문문명권의 중심부·중간부·주변부이다. 월남 또한 한국과 같은 중간부라고 할 수 있다. 문명권의 중심부·중간부·주변부가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을 중세전기, 중세후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동안에 어떻게 이룩했는가 말해주는 전형적인 본보기가 동아시아에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세 문명권의 문학사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이 중간부이고 일본은 주변부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과거제 실시 여부이다. 한문학의 능력을 시험해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제를 중국에서는 7세기부터, 한국에서는 10세기부터, 월남은 11세기부터 실시하고, 일본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은 한문을 읽는 데 치중해 글 쓰는 능력이 모자랐으나, 민족어 글쓰기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다.

중세전기에 중국의 귀족문인들이 공동문어문학의 가치를 한껏 높이면서 창작 규범을 확립하고 문명권 전체의 고전을 창조할 때, 한국·월남·일본에서는 부러워하면서 배우고 따르고자 했다. 중세후기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는 한국이 적극적인 구실을 했다. 그 선두에 선 13세기 시인 李奎報는 한시가 민족과 민중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갖추어 민족문학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했다.

명나라의 침공을 물리치고 주권을 되찾은 15세기 월남에서는 투쟁의 주역 阮應(Nguyen Trai)가 한시를 혁신해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한자로 월남어를 표기하는 國音詩가 한시와 대등한 수준과 의의를 지닌 문학이게 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문자 훈민정음을 만들고, 왕조 서사시 <龍飛御天歌>와 불교서사시 <月印千江之曲>을 지어 서사시의 전통을 표면화했다. 李滉은 <陶山十二曲>을 시조로 지어 민족어문학이 당대 최고이념을 나타낼 수 있게 했다.

한국에서는 ‘가사’라고 하고 월남에서는 ‘賦’(fu)라고 일컬은 민족어 장시에서 인생만사를 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문제 삼는 작업을 함께 했다. 그런 시는 敎述詩(didactic poetry)여서 서정시와 구별해야 마땅하다. 중세전기는 서정시의 시대였다가 중세후기 이후에는 서정시와 교술시가 공존하게 된 변화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한국과 월남에서만 나타났다. 문명권의 중간부에서만 민족어 교술시가 발달한 것은 다른 세 문명권에서도 일제히 확인되는 공통된 현상이다. <農家月令歌>・<日東壯遊歌>・<龍潭遺詞> 같은 작품을 다른 여러 곳의 교술시와 비교해 고찰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과제이다.

주변부인 일본에서는 중세전기에 이미 공동문어문학보다 민족어문학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 『萬葉集』(Manyōshū)이나 『源氏物語』(Gengimonogatari)를 이룩했으나, 중세후기문학으로의 전환을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쳤다. 和歌(waka)의 형식과 작품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민족어문학인 소설과 회곡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성장했다.

같은 시기에 중국과 한국에서도 소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작품 수는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불만을 가진 지식인이 소설을 써서 하고자 하는 말을 했다. 한국소설은 부녀자들이 즐겨 읽으면서 필사하는 동안 개작할 수 있었다. 중국소설은 작가소설이고 한국소설은 독자소설이라면, 일본소설은 출판인소설이었다. 소설을 상품으로 삼는 출판업이 일본에서 특히 발달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가 요구하는 사상 각성을 민족어문학보다 한문학에서, 일본보다 한국에서 한층 힘써 했다. 朴趾源의 <虎叱>을 보면, 삶을 누리는 것이 좋고, 삶을 해치는 것이悪い 점에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서로 같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생명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서로 못살게 구는 악행을 계속한다고 나무랐다. 힘으로 빼앗고 죽이지는 않는다 해도, 거짓된 글을 써서 천지만물의 삶을 유린하는 거짓

선비를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것은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다. 중국의 王夫之(Wang Fuzhi), 일본의 安藤昌益(Adoshoeki), 월남의 黎貴惇(Le Quidon), 한국의 洪大容과 함께 한 생각을 朴趾源이 잘 가다듬어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동시대 유럽에서 볼테르(Voltaire)를 위시한 여러 계몽사상가의 사상 혁신 작업과도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 작품을 썼다. 유럽이 근대를 먼저 이루고 제국주의 침략의 길로 나서기까지 동아시아는 유럽과 대등한 보조를 취하면서 함께 나아갔다.

6. 근대민족문학의 특성 비교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동안 이룩한 혁신을 더욱 발전시켜 근대문학을 스스로 이룩하지 못하고, 유럽문명권의 세계 제패 때문에 침해를 받으면서 그쪽의 근대문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여러 문명권 많은 민족이 함께 겪는 고통이었다. 그런데 고통의 양상과 해결책은 경우에 따라 달랐다. 일본은 ‘脫亞入歐’를 표방하고 식민지 통치자 대열에 가담했다.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서 내전을 겪으면서 문학창작에서도 노선 투쟁을 심각하게 벌였다. 월남은 한국처럼 식민지가 되었으나 통치자가 프랑스였다.

멀리 있는 유럽문명권의 어느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문명권의 이웃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한국은 식민지 통치를 함께 겪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더욱 불행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둘 들 수 있다. 첫째 유럽의 근대문학을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탓에 이해가 깊을 수 없었다. 둘째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는 정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파시즘으로 기울어지는 무단통치를 강행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전면 부인하는 폭압을 일삼았다.

첫째 조건이 표면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행이었다. 비평적인 논의를 보면 근대문학의 간접적 이식 때문에 생긴 차질이 심각했다. 그러나 실제 창작에서는 작가들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기조차 하면서도, 민족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근대문학의 자생적인 원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제3세계에 널리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민족문학을 이룩했다.

둘째 조건 때문에 일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항거할 수는 없었다. 일본 자체에서 생겨나자 바로 압살된 프로레타리아문학을 식민지에서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은 잘못이었다. 투쟁의 구호는 내세우지 않고 오직 내실만 소중하게 여기면서, 암시, 상징, 풍자 등의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비판하고 민족해방의 의지를 다지는 문학은 하는 것이 마땅한 대응책이었다. 문학이 스스로 표방하지 않으면서 민족을 이끄는 사명을 맡아 깊은 신뢰를 얻어냈다.

시의 양상을 보면 표면의 혼란이 내면의 깊은 층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시조를 부흥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본의 전례에 따라 자유시를 써야 한다고 할 때, 그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시인들이 있어 전통적 율격을 변형시켜 계승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의 의지를 고도의 시적 표현을 갖추어 나타냈다. 李相和·韓龍雲·金素月이 그 선두에 서서 남긴 뛰어난 작품이 널리 애송되면서 민족문학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평가되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일제 통치기 말기에 옥사한 李陸史와 尹東柱는 정치적인 시인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 민족주의 이념의 시를 써서 민족의 시인이 된 것도 아니다. 고결한 마음씨를 가지고 시대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소박한 서정시로 나타냈을 따름인데, 일제가 체포하고 감금해 죽게 해서 민족해방투쟁을 위해 순교한 지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문학은 정치노선이니 민족의식이니 하는 명분보다 월등하게 높

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만들었다.

근대소설을 확립한 廉想涉은 『三代』(1931)에서 시대 변화와 함께 나타난 사고방식의 차이와 노선 투쟁의 심각한 양상을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면적으로 그렸다. 姜敬愛는 『人間問題』(1934)에서 지주의 수탈에 건디다 못하던 소작인이 도시로 나가 공장노동자가 되어 공장주를 상대로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식민지하에서 전개된 무산계급 투쟁의 전형적인 과정을, 연약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보여주는 문체로 그려나갔다. 蔡萬植은 『濁流』(1937)에서 마음씨가 선량한 탓에 험악한 현실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의 운명을 그리면서 의식이 깨어날 것을 암시하는 작업을, 판소리를 계승하면서 전개했다.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뒤에는 남북이 분단되고, 양쪽의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문학을 했다. 남쪽에서는 유럽문명권 문학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평가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쪽에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창작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민족사의 전개를 서사시나 역사소설에다 담아 기념비적 작품을 이룩하고자 한 것은 서로 같다. 그런 작품인 북쪽의 趙基天의 『白頭山』과 李箕永의 『豆滿江』이, 남쪽의 申東曄의 『錦江』과 朴景利의 『土地』가 높이 평가되고 많은 독자의 호응을 얻었다.

7. 세계문학 속의 한국문학

위에서 든 세 가지 사실은 한국문학사가 기존의 편견을 넘어서 세계문학사를 실상대로 깊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세 가지 사실을 한국의 경우와 대등한 증거력을 가지고 하나씩 갖춘 개별문학은 많이 있다. 그러나 셋을 구비한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문

학을 제대로 알아야 세계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좋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문학은 우수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문학에서 우열을 다투는 것은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문학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역사적인 단계나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관점을 택해 문학사를 다시 쓰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한 작업은 그런 제한성과 특징을 가지면서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업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에 세계문학사 전개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간추려 정리해보자. (1) 다른 여러 곳에서도 널리 갖추고 있다가 중간에 상실한 유산을 한국에서는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구비서사시는 이에 해당한다. (2) 문명권의 중심부나 주변부에서는 없는 특징을 중간부에서 지녀 문명권의 구조와 변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관계는 이에 해당한다. (3) 식민지 통치를 겪으면서 당한 격심한 불행이 보람 있는 창조의 원천이 되었다. 근대문학은 이에 해당한다.

(3)은 민족분단의 고통을 넘어서 통일을 바람직하게 성취하는 데 문학이 큰 기여를 한다고 믿을 근거가 된다. (2)는 불필요한 갈등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동일 문명권의 결속을 다시 다지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1)는 문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비문학을 소중한 유산으로 삼아 미래를 창조하고자 하는 많은 민족의 동지 노릇을 하는 임무가 한국인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말해준다.

